

도교육청, 2023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발

정책연구 분야 배정인원 대폭 늘려

올해 70명 중 3명에서 내년에는 80명 중 39명으로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4·초등 43·중등 33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발에 나섰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기본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 12월 6일까지 서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연수를 희망하는 교사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접수하면 된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우수교사에 대한 보상을 통한 교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23학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 4명, 초등교사 43명, 중등교사 33명 등 총 80명으로 예년에 비해 10명 증가했다. 특히 정책연구 분야 배정인원을 큰 폭으로 늘렸다. 올해의 경우 선발인원 70명 가운데 3명만이 정책연구를 진행한 데 비해 내년에는 정책연구 39명, 자율연구 41명으로 배정했다. 이는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

가 반영된 것이다. 자율연구는 △수업혁신 △학력 신장 △기초학력 신장 △미래교육 △교과신장 △진로진학 지도 △생활지도 △특성학교(직업계고) 혁신방안 등 8개 연구주제 중 1개 영역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정책연구는 미래교육·농촌유학·특수교육·기초학력 등 20개 영역에서 모집하며, 각 정책연구기관별 연구주제 및 모집 지원 조건을 확인 후 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공립유치원 교사와 초·중·고·특수학교 교사로 실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전라북도 학교 근무 실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재직 교사는 임용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선발 절차는 1차 적격여부 심사, 2차 연구수행능력 심사, 3차 학교 교육 기여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6일 최종 연수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연수 대상자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 동안 자율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통해 우수 교원에 대한 보상 기회 제공, 교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 현장 연구를 통한 학교교육개선 역량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면서 "우수 연구 결과물은 공개수업,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전북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29일 전주온빛중학교를 찾아 온빛증을 포함한 전주혁신지구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감과 함께하는 사랑의 케이크·머핀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달콤한 케이크를 나눠요’

서거석 교육감, 전주혁신지구 학부모들과 온빛중서 사랑의 케이크·머핀 나눔 봉사
호성보육원 찾아 양말과 함께 직접 전달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들과 함께 케이크와 머핀을 직접 만들어 보육원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서 교육감은 전주온빛중학교(교장 양정복)를 찾아 온빛증을 포함한 전주혁신지구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감과 함께하는 사랑의 케이크·머핀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 교육감은 앞서미를 두르고 비닐장갑을 낀 채 학부모들과 함께 케이크와 머핀을 만들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학부모들은 각 학교의 현안인 과제·과필 학교 현안을 언급하며, 적정 규모의 학생수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해달

라고 건의했다. 이어 서 교육감은 "증장기 학생 배치 현황 등을 파악해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서 교육감은 학부모들과 함께 전주호성보육원(원장 나소양)을 방문해 정성들여 만든 케이크와 머핀을 직접 전달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양말도 함께 맡겼다. 양말은 학부모들이 따로 마련했다. 한편, 호성보육원에는 현재 미취학 아동 5명, 초등학생 27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기타) 2명 등 총 48명이 생활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케이크와 머핀을 만드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육 현안을 주제로 소통도 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포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9일 전주 왕의지빌에서 '학교 미디어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도내 각급 학교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미디어교육 강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인식 개선 및 실천력 강화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이순아 연구위원의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학교 미디어 교육의 효과' 발표를 시작으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서는 타지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과 실태 분석을 통해 학교 미디어 교육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학과가 농업법인 무주스마트팜, 에어돔하우스(주)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무주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힘 보탠다

전북대, 에어돔하우스 등과 협약 체결... 인삼재배·작물개발 참여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학과(학과장 주호중)가 농업법인 무주스마트팜(대표 장운환), 에어돔하우스(주)(대표 신오식)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2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대학은 1만 평 규모의 노지형 스마트팜에서 인삼 수경재배 기술과 고급 고추장이 종자를 농업법인 무주스마

트팜과 공동개발을 위한 R&D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어돔하우스(주)는 농업용 에어하우스를 개발한 회사로 기존 시설하우스에 비해 3배 이상의 작물 생산이 가능하고, 특히 ±8℃ 온도차가 나고 있어 냉·난방에도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 공기도 필터링으로 강제하고 15M 상당의 높이와 7기압의 압력은 병원균과 해충 등이 사실상 살기 어렵기 때문에 유기농산물 생산에

최적의 조건이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3월 CJ그룹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종자 생산에서 수확까지 실습,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갖겠다. 특히 농업의 산업화를 목표로 전국 최초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해 무주군을 여름딸기의 메카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존 시설하우스 재배를 뛰어넘는 신개념의 농업을 제시한 것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전량 CJ그룹과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에 공급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국내 최초 공장 제작률 99% 시스템 적용 '이동형 학교' 개발

전북대 입주기업 엔알비 우수산업기술성과 선정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주)엔알비(대표 강건우)가 개발한 '국내 최초 공장 제작률 99%의 리모케이블 빌딩 시스템(Relocatable Building System)을 적용한 이동형 학교(Bridge School)'가 한국공학한림원 주관 '2022 우수산업기술성과'에 선정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국민들에게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계 및 산업계 연구자들 간 최신 기술과 산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공학한림원 선정 산업기술성과를 발굴 선정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사이 산업기술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이룬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산업기술성과 발굴위원회의 심층평가를 거쳐 19개의 우수기술을 최종 선정했다. (주)엔알비는 군산 오식도동에 위치한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에 2019년 10월 입주한 모듈러 전문 벤처기업이다. 이번에 우수산업기술성과로 선정된 '국내 최초 공장 제작률 99%의 Relocatable



엔알비가 개발한 이동형 학교.

Building System을 적용한 이동형 학교(Bridge School)는 특허 받은 RB공법(Relocatable Building system)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 제작률 및 재사용률을 실현함으로써 국내에 이동 가능한 건축물이라는 신규시장의 문을 열고 동시에 그동안 침체된 모듈러 건축시장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높은 성과를 이룬 기술이다. 특히 (주)엔알비는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Reddot Award 2022(독일) 제품 부문 본상 수상에 이어 올해 IDEA Award 2022(미국) Social Impact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2관왕 달성으로 '이동형 학교(Bridge School)'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산하 공학컨설팅센터 중기부 운영평가 '전국 1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중점사업단 산하 공학컨설팅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2년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공학컨설팅센터 운영기관 평가 결과 전국 1위(A등급)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에 지원을 위해 해당 중소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한 전문가를 매칭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5개 권역에 9개 대학의 공학컨설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전북대 공학컨설팅센터는 지난 2년 동안 20개 기업으로부터 238개의 기술지원 요청을 받아 193개의 과제를 도출, 45개 과제가 선정돼 약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기술에 지원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45건, 논문 30건, 기술이전 12건, R&D 연계지원 28건, 인준평가 32건, 마케팅 지원 21건, 컨설팅지원 161건, 교육연계 43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신소재공학부 학부생들 전기재료학회 논문상 휩쓸어

김현승 '압전 패치 소자연구' 최우수상 수상
임성빈 '고분자 분극특성 연구' 포스터 최우수
김혜준, 학부생 경진대회 발표서 최우수상



김현승, 임성빈, 김혜준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학생들이 최근 열린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연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현승 박사과정생이 문어 빨판을 모사한 압전 패치 소자 연구를 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임성빈 석사과정생은 강유전체 복합소재에서 고분자의 분극특성이 미치는 연구 내용을 담은 포스터 발표를 통해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임성빈 학생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논문지에 11월호에 게재된 논문으로 우수논문상도 수상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학부 연구생들도 두각을 나타냈다. 김혜준 학생과 박민아 학생이 '학부생 경진대회' 발표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지도한 정창규 교수(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는 " 그동안 우리 학생들과 함께 좋은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이번 학술대회에서 좋은 결과로 환원돼 매우 기쁘

다"며 "특히 부문별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해 더욱 값있다. 학생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하나 파워 온 소셜 벤처 제주 위케이션 성료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은 하나 파워 온 소셜 벤처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을 지난달 25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우수팀을 대상으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제주 위케이션을 진행했다. 군산대학교에서는 PMEZ팀과 세터리쉬 2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돼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위 학생들은 다음 달 7일에 이루어진 최종 성과공유회 또한 참석할 예정이다. /군산=김관용 기자